



이달의 과학자

경북대 공대 고분자공학과  
**李東鎬** 교수

# 활성 뛰어난 종합촉매 담지법 개발

올해 과총으로부터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받은 경북대 공대 이동호교수는 고분자 과학분야에서 착실한 연구를 쌓고있는 중견 과학자이다. 이교수는 폴리에틸렌 등의 폴리올레핀 제조에 필요한 종합촉매에 대한 연구발표로 학계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교수가 운영하는 종합촉매연구실을 거쳐간 석사이상 졸업생 40여명도 현재 연구소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교수는 새로운 화학공업의 한 분야로서 고분자화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 고분자학 연구논문 70여편 발표

이교수는 요즘 두세가지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된 분야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폴리올레핀의 제조에 필요한 종합촉매에 대한 것이다. 20여년 전 캐나다에서 수행한 post doc과정에서 소위 Ziegler-Natta촉매를 처음 접한 후 이교수는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며 그동안 국내외의 전문학술지에 이 분야의 연구 결과를 70여편 정도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활성이 뛰어난 담지 메탈로센 촉매의 제조 및 종합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의 종합촉매 담지법을 개발하여 국내의 모 기업체에

우리나라 고분자과학과 기술의 역사는 매우 일천한 편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고분자 과학도와 공학도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고분자 제품의 생산과 산업 기술적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동호교수(경북대 공대 고분자공학과·52세)는 최근 고분자과학 분야에서 착실한 연구성과를 쌓아 가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

고 있는 중견 과학자이다.

이교수는 서울대 공업화학과의 안태완교수의 영향을 받아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고분자를 전공으로 택하게 되었다. 그당시 60년대 말에는 고분자 분야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외국에서는 고분자 공업의 전성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국내에서는 안교수처럼 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귀국하여 고분자 과학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시기여서 이

연구 결과를 이양했으며, 그 결과를 독일의 전문학술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주 연구과제인 폴리올레핀 종합촉매는 현재 국내의 우수 대기업인 석유화학회사에서 거의 전량 수입하여 사용되고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국내에서 그 개발이 필수적인 제품이다. 이교수는 이 제품의 개발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를 앞으로도 10여년 정도 더 계속할 생각이다. 이교수는 정년 후에도 그때까지 얻어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에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 과학기술정책 장기안목으로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회복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는 이교수는 다른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정책들이 너무 인기에만 편승하려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경제문제만해도 문제가 일어난만에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멀리 보고 차분히 한계단씩 밟아 나가는 것이 옳은 정책일 것 같은데 벌써 경제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는 등 너무 성급해 보인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분야도 현대 과학기술에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짧으므로 과학기술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획되고 그 결과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풍토가 아쉬운 실정이라고 말한다.

이교수는 지식과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학문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전공 지식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면에 도



◀ 제자들과 함께 자리한 이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움이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과학재단과 기업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대학원생의 연구 능력과 기술 전문성을 고양하는 일도 중요한 일 중 하나이다.

### 제자들의 사회활약 흐뭇

이러한 이교수의 노력 덕분에 이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촉매연구실을 거쳐간 석사 이상의 졸업자 40여명 대부분이 산업계의 연구소 및 생산 현장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으며, 졸업생들 스스로도 모임을 만들어 1년에 2번 사회인으로서의 근황 및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학내에서 학과장 일을 맡고 있는 이교수는 강조할 필요도 없이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되는 일은 옛된 얼굴의 학생이었던 제자가 어엿한 모습의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하여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며, 우연히 만나 소주잔과 함께 밝은 웃음을 보는 일은 더욱 좋은 일이라고 한다.

이교수는 50여년의 세월을 살아오

며 잊지 못할 추억으로 캐나다 및 미국에서의 post doc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 길에 뉴욕에서 LA까지 자동차로 10여일동안 미 대륙을 횡단한 일이라고 밝힌다.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살아가려 한다는 이교수는 제자들이 항상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며 집에서 자녀들에게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미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69년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이교수는 서울대에서 석사(71년, 화학공학)와 박사(75년, 고분자공학) 학위를 취득하고, 76년부터 경북대 공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88년에는 경북대에서 수여하는 제5회 학술상을 수상했으며, 89년에는 한국고분자학회로부터 학술상을, 98년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계희(50)여사와의 사이에 대학에 재학중인 상영(23)과 현철(20), 중학교에 재학중인 막내딸 경진(14) 2남 1녀를 두고 있다. **ST**

송해영<본지 객원기자>